

대학생의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인식

A Study on Recognition Regarding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of College Students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신미아

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Mi A Shin

목 차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References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among college students. It is also aimed to provide a positive insight on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of college students. This study was used as a descriptive research design.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468 college students from South Jeollanam Province. Descriptive statistics by using SPSS program(version 12.0)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Important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mean recognition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was nearer to the moderate level. The recognition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Korean characteristics of homogeneous nation which shows the importance of blood relationship. Thus it was found out that when considering how to raise the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positively, both the characteristics of homogeneous nation and blood relationship are important factors to consider.

주제어(Key Words) : 국제결혼(international marriage), 이주자(immigrants), 인식(recognition), 대학생(college students)

I. 서론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여성들이 농촌 남성들과 결혼을 기피하면서 결혼시기를 늦춘 농촌의 많은 미혼 남성들이 1990년대부터 ‘농촌총각 결혼시키기 사업’을 통해 외국인 여성 특히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동남아 출신의 여성들과 결혼을 하면서 급속도로 증가하였다(Hong, 2007; Kim & Um, 2011; Yang, 2008).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결혼에 대한 국제결혼은 1995년 3.4% (13,494명)에서 2005년 13.5%(314,304명), 2009년 10.8%(309,759명)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국제결혼에서 중국이 2,617명(32.1%), 일본 2,422명(29.7%), 미국 1,312명(16.1%)인 반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2009년을 기준으로 중국이 11,364명(45.2%), 베트남 7,249명(28.8%), 필리핀 1,643명(6.5%)등으로 동남아 출신 여성들과의 결혼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Statistics Korea, 2010). 2009년 기준으로 외국인 등록인구의 유형 중 결혼 이주자는 27만명으로 노동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2050년에는 21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K-T. Kim, 2011). 이와 같은 추세로 볼 때, 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인 이주자의 유입증가는 우리사회가 이미 이민국 사회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Lee, 2005). 특히, 결혼 이주자 증가와 함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그 자녀들도 2006년 7,998명에서 2010년 30,040명으로 거의 3배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0).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이주자들과 그 자녀들은 우리 사회와 학교내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속으로 흡수되고 있다.

그러나 단일 민족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국인의 의식속에 존재하는 우리 외모와 다른 이주자에 대한 외모는 이주자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이어지고 그릇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Han, 2002). 단일민족은 혈통주의를 근거로 같은 핏줄을 가진 민족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단일민족이라는 한국인의 특성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Jang, 2001). 특히, 단군이래 단일민족의 혈통을 이어왔다는 자부심과 순혈주의적 민족에 대한 관점은 한국인의 인식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 국제결혼 이주자 또는 그 자녀들을 국민 또는 우리 민족의 범위 안으로 포용하지 못하고 타자화하고 있다(Seol, 2006). 따라서, 국제화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폐쇄적인 민족주의 성향을 버리고 개방적 민족주의 성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방적 사고를 통해 이주자들을 우리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받아들여려는 민족주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이다(Jang, 2001).

인식은 한 목표대상에 대한 일련의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합의된 신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의 일반적 인식은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회에 존재하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며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부분도 습득하게 된다(Han, 2002; Kim & Um, 2011). 이주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 역시 사회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다. 국제결혼 이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은 우리사회에서 느끼는 사회적 편견이 주 원인으로(Park, 2011), 이러한 편견은 학력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편이다(Byun, 2008). 결혼 이주자에 대한 편견은 이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있어 장애로 작용하고 그들이 결혼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부적응과 스트레스,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져온다(Cui, 2007; Lee, 2005; Lee, 2010; Lim, 2010).

따라서 이주자들이 우리의 진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역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대학생은 결혼이주자에 대해 긍정적인 고정관념과 긍정적인 감정이 높지 않으나(Jeon & Jun, 2010)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은 청소년기를 지나 대학에 들어왔고 대학에서 여러 지역에서 온 많은 학생들과 접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학업과 독립된 사회생활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집단으로 특히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는 산업단지나 국제결혼 이주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학기중이나 방학시기에 이주자와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다른 문화권내의 이주자들과 접촉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M-H. Kim, 2011).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대학생이 이주자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결정되기도 하며 이주자가 한국과 한국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하므로 이주자와 자주 접할 기회가 있는 대학생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은 앞으로 국제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가가 한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단일민족의 정체성, 자부심, 고유문화에 위협을 받을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은 국제결혼과 이주자를 수용하는데 있어 심리적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Yang, 2008).

또한, 여학생은 흑인에 대해서는 부정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반면, 백인을 선호하는 서구화성향이 강하며 특히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민족주의 성향이 더 강하다(Jang, 2001). 즉, 우리나라 대학생은 아직도 인종관, 민족관이 전근대적

수준을 넘지 못하고 타인종과 타민족에 대해서는 배타적 성향을 보이며 폐쇄적인 민족주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대학생은 한국이 혈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단일민족이라는 점을 높게 인식 하고 있으나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농촌남성들이 결혼을 사랑보다는 결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선택한 여성들이 결혼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며(Byun, 2008; Kim & Um, 2011) 가족의 국제결혼과 외국인의 귀화현상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인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차별의식이 존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Han, 2002).

따라서 개방적인 세대이지만 이러한 부수적인 문제들을 수반하고 있는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주자 접촉시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편견과 이해부족 등으로 이주자들이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는데 있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학생들은 국제결혼으로 파생된 이주자들의 특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이주자들을 지지해줄 수 있는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국제결혼과 이주자에 대한 시각과 인식을 재정립하고자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Kim & Um, 2011; Park, 2011; Yang, 2008), 그러나 이러한 논문의 경우 다문화가정과 국제결혼이라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인식 혹은 태도를 조망해본 연구들이었고 그 사회적 현상으로 파생된 하나의 존재인 이주자에 대한 인식을 다룬 연구는 Jung(2008)의 연구외에 거의 미흡하며 이 또한 대상자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주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체 혼인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14.5%로 가장 높은 전남지역(Statistics Korea, 2011) 특히 중국인 유학생이 전체 4~5%정도를 차지하는 M 지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이주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중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향변인을 증재하여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정립하여 다문화권으로 들어선 현 시대를 함께 통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인식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일반적 특성에 따라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국제결혼 이주자 관련변인(가족 중 이주자 유

무, 이주자 접촉여부, 단일민족 인식여부, 단일민족으로서 한국인의 특성, 단일민족으로서 자부심, 혈통 혈연 중요성 여부)에 따라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국제결혼 이주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수집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연구대상자는 전라남도 M군에 소재한 대학생들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5월 16일부터 20일까지이며, 편의 표집방법을 이용하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익명 작성, 연구의 자료로만 활용됨을 설명한 후 이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익명 작성 후 즉시 수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설문지 작성 전에는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인권보장 측면에서 설문지를 작성하는 중에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와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하였으며, 추후 문의를 위해 연구자의 연락처를 공개하였다. 총 배포된 설문지는 475부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한 총 468부(98.5%)를 연구의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는 일반적 특성,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인식, 국제결혼 이주자 인식 관련 변인이며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선행연구에서 관련변인으로 제시가 되었던 변인 즉, 성별, 학년, 전공, 종교, 거주유형, 성장지역, 해외체류경험 등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인식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인식은 Jung(2008)이 이용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우리나라 사람과 다른 민족과의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 가족이나 지인의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 자신의 국제결혼 의향에 대한 인식, 사회구성원에 대한 인식, 동등한 기회제공에 대한 인식, 도움제공 의향에 대한 인식 등 총 6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Table 1.
Mean scores of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Variables	Mean(\pm SD)
Recognition regarding international marriage between our nation and other ethnic group	3.38(.95)
Recognition regarding international marriage of family	3.28(.99)
Recognition regarding inten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2.76(1.12)
Recognition regarding members of society	3.69(.87)
Recognition regarding equal opportunity	3.82(.92)
Recognition regarding help	3.71(.93)
Recognition regarding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3.44(.76)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런 편이다’ 5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임을 의미한다.

2) 국제결혼 이주자 인식 관련변인

국제결혼 이주자 인식 관련 변인은 Jung(2008)과 Park(2011)이 이용한 도구 중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가족이나 친척중 국제결혼이주자 유무, 이주자 접촉경험 유무, 단일민족 인식여부, 단일민족으로서 한국인의 특성여부, 단일민족으로서 자부심 유무, 혈통 혈연 중요성 유무 등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인식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t -test, 일원변량 분석을 사용하였다.
- 3) 국제결혼 이주자 관련변인에 따른 대학생 인식의 차이는 t -test를 사용하였다.
- 4) 국제결혼 이주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로 빈도와 백분율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었다. 즉, 대상자는 총 468명으로 성별은 남학생 244명(52.1%), 여학생 224명(47.9%)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201명(42.9%), 2학년 114명(24.4%), 3학년 78명(16.7%), 4학년 75명(16.1%)으로 나타났다. 전공을 살펴본 결과, 대상자가 총 18개 전공으로 분류가

되었으며 이 중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의학관리학과는 보건계열로, 나머지 전공은 모두 비보건계열로 재분류한 결과 보건계열은 303명(64.7%), 비 보건계열은 165명(35.3%)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220명(4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기독교 162명(34.7%), 천주교 47명(10%), 불교 37명(7.9%), 기타 2명(0.4%)순이었다. 현재 거주형태는 기숙사 381명(81.4%), 자취 55명(11.8%), 본인집 32명(6.8%) 순으로 나왔으며, 이러한 결과는 자료를 수집한 학교들이 지방대학의 특수성으로 대부분 타지에서 학생들이 많이 유입된 결과로 보여진다. 대학 입학전 성장 지역을 알아본 결과 중소도시 177명(37.8%), 광역시 168명(35.9%), 읍면군 123(26.3%)이었으며, 외국체류(1개월 이상) 경험은 ‘없다’가 432명(92.3%), ‘있다’가 36명(7.7%)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인식정도

본 연구에서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었다. 즉, 대상자의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은 평균 3.44(\pm .76)로 1-5점 범위에서 보통 이상 즉,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하위 문항 각각의 평균을 알아본 결과, 동등한 기회제공에 대한 인식은 3.82(\pm .92), 도움제공 의향에 대한 인식 3.71(\pm .93), 사회구성원으로 인식 3.69(\pm .87), 우리나라 사람과 다른 민족과의 국제결혼 인식 3.38(\pm .95), 가족이나 지인의 국제결혼 인식 3.28(\pm .99), 자신의 국제결혼 의향에 대한 인식 2.76(\pm 1.12) 순으로 나타났다.

3.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인식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로 t -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 학년, 전공, 종교, 거주형태, 성장지역, 해외체류 경험유무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2.
Differences of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 = 46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F/t(p)
Gender	Male	244(52.1)	3.39(.79)	1.615(.204)
	Female	224(47.9)	3.49(.71)	
Grade	Freshman	201(42.9)	3.44(.78)	.769(.512)
	Sophomore	114(24.4)	3.37(.67)	
	Junior	78(16.7)	3.42(.80)	
	Senior	75(16.1)	3.54(.76)	
Major	Health	303(64.7)	3.49(.74)	.367(.545)
	Non-health	165(35.3)	3.34(.78)	
Religion	No	220(47.0)	3.48(.77)	1.159(.328)
	Christianity	162(34.7)	3.35(.77)	
	Catholicism	47(10.0)	3.45(.82)	
	Buddhism	37(7.9)	3.54(.42)	
	Others	2(0.4)	4.00(.00)	
Residential state	Boardinghouse	381(81.4)	3.59(.78)	2.194(.113)
	Rented room	55(11.8)	3.43(.75)	
	Parent's house	32(6.8)	3.25(.78)	
Growth areas	Metropolitan city	168(35.9)	3.44(.74)	1.369(.255)
	Medium-sized city	177(37.8)	3.37(.80)	
	Town	123(26.3)	3.52(.70)	
Living abroad	No	432(92.3)	3.43(.73)	-.174(.863)
	Yes	36(7.7)	3.46(1.00)	

Table 3.
Differences of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by the existence of immigrants in the family or relative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t(p)
Immigrants in the family or relative	No	425(90.8)	3.40(.77)	-3.925***
	Yes	43(9.2)	3.77(.56)	

***p < .001

2) 국제결혼 이주자 관련변인에 따른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인식

국제결혼 이주자 관련변인에 따른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나 친지 중 이주자 유무에 따른 인식의 차이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상자 중 가족이나 친척 중 국제결혼 이주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425명), 가족이나 친지 중 이주자 유무에 따른 이주자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3.925, p < .001).

(2) 이주자 접촉 경험 유무에 따른 인식의 차이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상자 중 이주자와 접촉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으며(345명), 이주자 접촉 경험 유무에 따른 대학생의 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268, p < .05).

(3) 단일민족 인식 유무에 따른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인식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단일민족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에서는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가 거의 절반이상에 가까웠으며(249명), 단일민족 인식 유무

Table 4.
Difference of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by contact with immigrants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t(p)
Contact with immigrants	No	345(73.7)	3.39(.74)	-2.268*
	Yes	123(26.3)	3.57(.78)	

*p < .05

Table 5.
Differences of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by recognition of homogeneous nation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t(p)
Recognition of homogeneous nation	No	249(53.2)	3.59(.67)	4.660***
	Yes	219(46.8)	3.26(.81)	

*** $p < .001$

Table 6.
Difference of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by characteristics of homogeneous nation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t(p)
Homogeneous nation	Proud heritage	146(31.2)	3.10(.79)	23.904***
	Non-proud heritage	322(68.8)	3.59(.69)	

*** $p < .001$

Table 7.
Difference of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by pride as homogeneous nation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t(p)
Pride as homogeneous nation	No	199(42.5)	3.60(.74)	4.144***
	Yes	269(57.5)	3.31(.75)	

*** $p < .001$

Table 8.
Difference of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by importance of blood relationship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t(p)
Importance of blood relationship	No	210(44.9)	3.61(.66)	4.648***
	Yes	258(55.1)	3.29(.80)	

*** $p < .001$

에 따른 국제결혼 이주자 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4.660, p < .001$).

(4) 단일민족 특성에 따른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인식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단일민족이라는 한국인의 특성을 알아보는 질문에서는 '자랑할만한 유산이 아니다'로 응답한 경우가 거의 절반 이상(322명)으로 나왔으며, 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23.904, p < .001$).

(5) 단일민족 자부심 유무에 따른 이주자 인식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에서는 '예'로 응답한 경우가 절반 이상(269명)이었으며, 이에 따른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4.144, p < .001$).

(6) 혈통과 혈연의 중요성 유무에 따른 이주자 인식

Table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혈통과 혈연이 중요한지를 알아보는 항목에서는 '예'로 응답한 경우가 거의 절반 이상

(258명)으로 나왔으며, 혈통과 혈연 중요성 유무에 따른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4.648, p < .001$).

Table 9.
Factors influencing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Immigrants in the family or relative	.228	.125	.087	1.817
Contact with immigrants	.129	.083	.074	1.540
Recognition of homogeneous nation	-9.06	.077	-.060	-1.178
Characteristic as homogeneous nation	-.332	.083	.203	4.009***
Pride as homogeneous nation	.116	.074	-.076	-1.574
Importance of blood relationship	-.260	.068	-.170	-3.848***
Constant			3.602	
F			12.671***	
R ²			.142	
Adj-R ²			.130	

*** $p < .001$

3) 국제결혼 이주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독립변인은 t -test, ANOVA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인을 넣어 분석하였다.

국제결혼 이주자 인식의 설명력은 14.2%이며 단일민족이라는 한국인 특성($B = -.332, p < .001$), 혈통과 혈연 중요성 유무($B = -.260, p < .001$)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일민족이라는 한국인의 특성에 대해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혈통과 혈연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으며, 그 영향력 우선순위는 한국인 특성, 혈통과 혈연 중요성 유무 순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전남 지역내 대학생의 인식정도를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여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자 다문화권으로 진입한 현 상황을 현명하게 통합시키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인식은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 중 동등한 기회제공에 대한 인식, 도움제공 의향에 대한 인식, 사회구성원으로 인식, 우리나라 사람과 다른 민족과의 국제결혼 인식, 가족이나 지인의 국제결혼 인식, 자신의 국제결혼 의향에 대한 인식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Jung(2008)의 연구에서 이민자에 대한 균등한 기회제공과 이웃관계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오고, 친척의 국제결혼 찬성보다 자녀의 국제결혼 찬성이 낮게 나온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Park(2011)의 연구에서 국제결혼을 한 가정이 이웃에 거주할 경우 성인 대상자의 78% 이상이 사회 적응을 위해 그들을 도와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신의 국제결혼 의향에 대한 인식 정도가 가장 낮게 나왔는데 이는, 타인의 국제결혼은 찬성하나 자신의 국제결혼 찬성율이 가장 낮게 나온 Jung(2008)과 Yang(2008)의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해 이웃으로서 도와줄 의향이 있고 우리사회가 이주자에 대해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이주자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머리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자신이나 지인들의 국제결혼에 대해서 특히 자신의 국제결혼에 있어서는 아직은 소극적이고 배타적이며 폐쇄적인 사고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나 학교에서 잠재적으로 학습해온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단면도로서, 타인에게는 부드러운 잣대가 자신에게는 유난히 엄격한 잣대로 평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국제결혼 이주자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성별, 학년, 전공, 종교, 거주형태, 성장지역, 해외체류 경험유무 등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Park(2011)이 성별, 연령, 성장지역 등이 국제결혼 이주자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결과와 비슷하였다. Jung(2008)은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항목으로 성장지역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성장지역이 이주자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성장지역에 있어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본 연구대상자의 입학전 성장지역이 주로 중소도시와 광역시가 대다수(73.7%)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성장지역과 국제결혼 이주자 인식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경우 성장지역이나 현재 거주지역에서의 체류기간에 따라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결과를 더 의미있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국제결혼 이주자 관련 변인에 따른 대학생의 인식 차이를 알아본 결과, 가족과 지인 중 이주자 유무, 이주자 접촉 경험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변에 국제결혼을 한 지인 유무는 인식의 차이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Kim과 Um(2011)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으나 친지 중 이주자가 있는 경우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온 Jung(2008)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Byun(2008)은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개방성과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연구에서 이주자의 자녀들을 직접적으로 알고 자주 접촉하면서 지낸 경우에는 그들에 대해서 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Kim(2010) 역시 접촉경험이 부정적 고정관념을 덜 가지고 있고 행동의도와 행동이 다문화 수용적으로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 이렇게 대부분 선행논문과 본 연구 결과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까운 곳에서 자주 접촉하고 가족구성원으로서 이주자가 존재한 경우 친밀감이 높아지면서 외모와 편견으로 인한 거리감이 상쇄되고 그들을 자연스럽게 우리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이주자를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거부감 없이 그들을 대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증가시키거나 같이 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주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 외, 국제결혼 이주자 인식에는 단일민족주의 인식유

무, 단일민족 특성, 단일민족 자부심 유무, 혈통과 혈연 중요성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Han(2002)은 단일민족으로서 자부심과 혈통과 혈연 중요성 여부를 알아보는 질문에 대다수가 한국이 단일민족이라는 것에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혈통과 혈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Yang(2008)은 대학생들이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단일민족으로서 자부심이 손상되고 대한민국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그 이유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역시 현재 우리학생들이 여전히 순혈주의적이고 전 근대적인 민족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실례로, 다른 민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인은 단일민족이라는 폐쇄적인 민족관 개념을 탈피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로 보여진다. 국제결혼 이주자를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동안 학습되어왔던 한국은 단일민족이라는 고착화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알려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서 뿌리깊은 단일민족적 사고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동안 교과과정에서 주입식으로 강조해왔던 보수관을 탈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적인 교육과정 개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자를 포용하고 상호존중하고 각기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면서 그들이 외부인이라는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넷째, 국제결혼 이주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일민족이라는 한국인 특성, 혈통과 혈연 중요성 유무로 단일민족이라는 한국인의 특성에 대해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혈통과 혈연에 대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국제결혼 이주자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혈통주의를 근거로 같은 핏줄을 의미하는 단일민족에 대한 사고관이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인 대학생은 국제결혼이 서서히 증가되었던 1990년대 태어난 세대로 국제결혼 성장과 함께 성장이 이루어진 세대이며 앞으로 결혼 이주자들과 같이 동등한 한국 사회구성원으로 어울려 살면서 이들과 관련된 사회복지정책이나 제도 혹은 관련 법에 대해 깊게 관여할 주체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단일민족 사고관으로 이주자를 바라보는 현 시각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며 우리사회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 재조명이 필요한 중요한 전환기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대학생의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인식정도는 보통정도이며, 국제결혼 이주자 관련변인 중 가족과 지인 중 이주자 유무, 이주자 접촉여부, 단일민족 인식여부, 단일민족으로서 한국인의 특성, 단일민족으로서 자부심, 혈통 혈연 중요성 여부 모두가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단일민족이라는 한국인의 특성과 혈통혈연의 중요성이 국제결혼 이주자 인식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혈통과 혈연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단일민족관에 대한 고착화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국제결혼 과 이에 따른 다양한 다문화 관련 지식 및 정보들을 제공하는 교육과 국제결혼 이주자는 더 이상 외부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임을 인식하여 국제결혼 이주자를 이방인이 아닌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국가차원에서 다 함께 노력을 해야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자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에게 동호회활동,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역 사회내 이주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주 접촉할 수 있는 통합 여가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 차원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단일민족과 다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열린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이 교양과목이나 교과과정내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Byun, S-Y. (2008). A Study on Openness and Stereotype Towards Kosians: For the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Cui, J-H. (2007). A Qualitative Study on Adjustment and the Pattern of Korean-Chinese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The Women's Studies, 1*, 143-188.
- Han, H-W. (2002). Molecular dynamics study on amorphous-crystalline transition of binary lennard-jon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 Hong, Y-S. (2007). A study on children's educational problem of multicultural family and its implica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wangju, Korea.
- Jang, T-H. (2001). A Study on Preference a Race, Nation of College Students in Korea. *Contemporary Criticism, 14*, 99-113.

- Jeon, Y-G., & Jun, Y-W. (2010). Influences of Steretypes and Emotions Toward Women Immigrants by Marriage on Social Distance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9(1), 1-13.
- Jung, H-E. (2008). A Study on Social Perception of Marriage-based imigr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B., & Um, I-S. (2011). A Study on the University Students' Recognition on the International Marriage. *Journal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21(1), 51-73.
- Kim, K-M. (2010). The factors influencing multicultural receptive behavior on immigrant wives of international marriage.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5(2), 259-283.
- Kim, K-T. (2011). Analysis on the location of Multicultural Center Fac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H. (2011). The Experience as a Mentor of Mentoring Programs for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 Lee, H-K. (2005). Marriage Migration to South Korea: Issues, Problems, and Responses.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28(1), 73-106.
- Lee, J-S. (2010). The Variables Affectong Acculturative Stress of Women in Internatonal Marriage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9(6), 919-932.
- Lim, H. (2010). The Impact Factors on Mental Health among Marriage Migrant Women.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34, 189-221.
- Ministry of Educaton, Science and Technology. (2010). Status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http://www.mest.go.kr>.
- Park, S-M. (2011). A study on the Recognition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of the adul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chon National University, Chonnam, Korea.
- Seol, D-H. (2006). Nation, Race, Citizen. *The Korea Sociologic Association, Collection of Social Science in Convention*, 105-106.
- Statistics Korea. (2010). 2009 Marriage statistcs. <http://www.kostat.go.kr>.
- Statistics Korea. (2011). 2010 Multicultural Population statistcs. <http://www.kostat.go.kr>.
- Yang, S-E. (2008). A Qualitative Study on the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Towards International Marriage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2(24), 37-60.

접 수 일 : 2011년 11월 23일
 심사시작일 : 2011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 2012년 2월 5일